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참장

김철성 소장.

반 김일성 혐의로 숙단 받은

1.

김철성 해군 소장.

해군사령부 참모장 김철성은 1926년에 원동변강 연
해구에서 탄생하였다. 1937년에 원동에 살고있던 전세
고현인들이 강제 어구당환후 새로운 지방에 실려온 철성의
부모들은 살아갈수(안)있는 생활의 호대를 잡지못하고
이지방 저 지방에 이주하려 단다다갈 질병에 걸려 무로
양위와 누이동생은 세상을 떠나고 철성은 다슈켄트
에 살고있는 삼촌의집에서 살게되었다. 그는 1945년에
다슈켄트 사범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다슈켄트 주 1번에 있는
"북극등대" 건물은 내에 있는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일하
였다. 1946년에 우르베크 공화국 교육성의 명령에 의하여 단
기강습을 맞은후 1946년말에 북한에 파견되며 해군 군
관 학교 로어강좌에서 일하는동안 분학교 기별감령과 전후
출연 계획이라 완전히 수로함으로 1949년 졸업생들과 함께
최우등생으로 졸업하였다. 1949년 10월 1일에는 해군 참
모부 작전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어 작부에서 6.25 동족
상쟁을 맞이하게되었던바 적은 작전부장은 남한을 점령할
동족상쟁을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소련고물들의 지도하에서
오쿠일전봉어, 전쟁이란 "불이의 공격으로 번저는을쳐야 승리한다"는
기본 전후원칙에 따라 작전지도를 작성하는 한편 하북 연방
부대와 해군기지등에 하달할 전후공격령을 작성하여 사령관
한일부의 비준을 받아 총참모부 작전국에 제출하였다. 최고
사령관의 비준을 받은 전후공격 명령은 전후 개시 3일 전에
받았으나 "각 해군 기지들과 연합부대들에게는 다만 1950년 6월

2. 2시 50분까지 전달한 것이니, 각 군함, 어뢰정, 해군 육전
대들에게는 전속 개시 2시간 전에 개봉하도록 하였다. 이는 총
참모장의 명령에 의하여 참모부 기무과 급근에 넣고, 하부
부대 기지 등에 파견할 특별 파견 군관들과 자물쇠들을 준비
하고 있었다. 상부로부터 이상과 같은 명령지시가 내려온 다음
점은 작전부장은, 자기는 하부 연합부대에 나뉘어 전속 지휘를
할 의무가 없으나 한일부 사령관의 특별 허가를 받고 전방
전속장에 나가 전황대로 전속 지휘를 하겠다고 제일 근해운
기지 원산기지로 전쟁 개시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명령서를
가지고 내려갔다. 그는 명령대로 아침 3시에 각 어뢰정
장, 함장, 해안방어 해군 육전대 지휘관들을 불러놓고 6.25
동반의 개시에 대한 명령을 낭독하였다. 명령서를 낭독하는
도중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명령서에는 남한 국방
군이 먼저 공격하여 북쪽 땅을 2-3 기로씩 침입하였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전방 기지 등에서 적의 침공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없었던 것이 기지 앞이 미안하여, "이것은 38선 전역에
걸쳐 육군 부대들이 침공하였다는 말이 옳" 하였다. 김철성 작전
부장은 최고사령관이 비준한 해군사령관의 명령을 낭독한 따
름 원산기지장은 기지에서 지도제하고 자기는 전속 서명
과같이 어뢰정에 앉아 남침할 것을 계획하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에 공격 개시에 대한 명령은 원칙적
으로 기지장이 내리도록 하였다.

이렇게 1950년 6월 25일 5시에 드디어 남침을 공격
하는 북한어린 해군 부대들이 남침은 시작되었던바 작전부장
김철성 소장의 말에 의하면 38선을 넘어 주문진, 감능, 물진

포항까지 나가는 데는 국방군이나 군함을 만났³
없이 즉 아무런 저항력도 없는 항구들을 계속 점령하면
서 나갔다 각 항구들에는 다만 경비대들이 몇 명씩 있고
경찰병들이 몇 명씩 있어으나 그들은 상부 명령을 받지
못하였기에 아무런 전후도 하려 하지 않았다. 상부
명령에 의하여 물증도를 점령하여야 하였던⁴ 북한
해군 20 명이 어뢰정 1척과 어부들의 보충 발동선
1척을 몰고 가서 경찰 몇 명을 무장 해제하고 북한
식으로 내무원 몇 명 임명하고 몰수한 무장들을 그들에게
포류 주니 소위 북한식 해방이었다. 북한 해병들은 포항
에 도착하여 기대도 하지 않던 외국 함대를 만나게 되었으며
그들은 대대적 반공격에 넘어가 북한 해군들을 타격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때로부터 북한 해군들은 리함대의 때
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미 점령하였던 항구들을 하나씩
내륙에서 적은 힘으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작전부장 김
철성의 의견에 의하여 즉물진 항구의 결사전을 계획하고
후퇴하여 들어오던 어뢰정 2척과 소형, 경비정 등 12척대를
잘 준비하였다가 해안 부대들의 엄호하에 리함대 함대에
반타격을 가하였던 바 이전후에서 어뢰정들은 적사적
당거리 500 미터까지 접근하면서 군함들에 어뢰 타
격을 주었으며 이전후에서 리함대에서도 웃뜨가는
대군함⁵ 알찌모르키 침몰되고 다른 소군함 2척이 대파
되어 회전하였다. 즉물진 해전에서 북한 해군들이 비
교적 큰 성과는 얻지 못하나 항구는 리함대에게 내륙으로
후퇴를 계속하게 되었다. 북한 해군들에게는 전후를

4
계속할수있는 해병 전후기때라고는 어쨌든 오직 백내는
남지 않았다. 백내에 남아있는 백내로 전후다 원산에 들어
올때 언제볼어는 해안방어부대들의 포를 리용하여 이리
한들의 북한 항구들에 접근을 저지하여야하였으나 그
역시 거센 하포사격과 항공대의 무차별 집중적 포격
에 의하여 북한 항구마저 하나 하나씩 서서히 원산
까지까지 후퇴하다가 원산항에서 다시 한번 백내
결사전을 계획하고 생사의 항쟁을 하였으나 어쨌든
도적근한 백내를 침몰시키고 다른 한쪽은 대파시켜 드
루게하였으나 북한의 함대는 백내 전후기때 들을 다
침몰시키고 언제는 해군이 해군 육전대를 완전히
변하여 원산서 물어는 해군들이 전후다 육지에 불타
양덕 백내를 지나 만포진까지 후퇴하였다. 어쨌든
은 원산군 최고사령부도 김일성 최고사령관을 의숙로 하여
만포진 백내에 와 있었다. 해군 사령부가 최고사령관
의 명령에 의하여 중국인민지원군과 협동작전을 하면서
다시 평양에 나가게 되었으나 평양에 도착한 해군들은
제1차 공격을 총화하고 1950년 12월 30일 최고인
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명령으로 이리한들을 침몰 대파
시킨 어뢰정장 김근욱, 리완근 과 동해안 해군들의
전후들을 잘 조직보장할 해군사령부장 전복장 김철성
에게 조선인민공화국의 인민공화국 명칭 칭호를 수여하였다.
그후 1951년 정월달에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의하여 작전
복장 김철성은 소련해군 교습 지휘관 대위에 파견
되어 1953년 6월까지 2년반동안 공부하고 그를 역수한

5

성적으로 필할 다음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해군사령부
참모장으로 임명되었는데, 군사정보는 해군소장으로 승급되었다.
사람들이 신경을 쓸러내며 그를 다비식히며, 인간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 가장 고귀한 사람의 도덕을 다비화해석하는
김일성이 자기 자체가 망할 정도로 저조려 놓은 정통 운동은
드디어 인민군대내에도 1955년도 봄에는 시작되었다.
어제는 완전히 간부숙영조작 언바 런처인 홍곡에서 나온
준비된 간부들 불러 물어뜯기 시작하여 남한에서 입북한
간부 소련에서 온 간부, 환라리로 말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는 김일성 비바치산 출신만 안당지고, 다른 사람들은 전
부다 출적, 후독 한광이나 불광 등에서 유형사리 ^{하게} 끌려왔다.
소련에 공부하러 갔다가 귀국한 해군소장도 일년여 지나서
안타 이바란에 휩쓸리게 되었다.

참모장 김일성이의 사상검토 경로를 그의 부인 박노아
비바블로브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 « 1952년
에 군대내 사상검토운동이 가장 높은 정점으로 오를 무렵
즉 6월 말일 쯤 되어서 니콜라이(그의 러시아 이름)는
기분이 상당히 저락되고 초조한 기색에 수심을 띠고 단니는
것이, 아무런 말도 따르하지 않으나,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는 한번 나하고 말하기를 « 한고항에서 같이온
사람을 다정한 친구라고 믿고서 사실이 이야기를 내놓았
더니 그 사람은 그 말을 전부다 뒤집어 사상검토차로 상복
담기관에서 내려보낸 지도원에게 다 대줘스니 나는
아마도 이제 잘못된 것 같노» 하였다. 아니, 그
게 무슨 말 쓰이요? 한고항에서 온 다정한 사람이란, 여기

해군사령부에 한사람밖에 더 있소? 아니, 그사람이 그런 ⁶
양측한 일을 하였던 말이요? 하니 나글라이는 다시 계속하
여 말하기를 «이제 내가 말하든것은 누구에게도 다시 위유지
아오» 하고 제독하여 말하기를 «백주에, 이영호 사령관은
원래 아편쟁이였어서 사령부 군의소에 있는 몰퇴음악(마취제)
은 전부터 자기 집에 갖다두고 아편주사를 맞으면서, 일할시간
절반이상 집에 누워 계시니, 사령부 기관들 사이에 무슨군사
규율이 확립된다는 말이요; 하겠더니 이 말을 자기 말대로 꾸
여서, 내가 사령관의 자리를 빼앗기 위하여 교이적으로 귀의
뒤를 판다교 당지로 원세게 밀고하였소, 그러니 나는 잘못된
것 같도» 하면서 «한막에 나를 잡아들여가면 당신은 아들을
데리고 소련에 들어가 황부형님을 만나면, 아이들이나 살려달
라는 나의 부탁이나 전하오 하면서, 눈은 눈물을 흘리었다. 나는
글라이와 10년을 살아도 그가 눈물을 흘리는것은 처음 보았다. 그후 출
책 교활한 사령부 안기부는 소련에서 온 두삼을 다 검거하고 심문하
기 시작하였다. 그후 글라이와 가까이 지내던 정치안전부
기관들이 전하는바에 의하면 글라이 한고함 "친주"는 예심
과정에서도 한가지 첩부재료를 주었는바, 그것은 - «조선인
인군은 정주군인데 별다른 대원처럼 총은 거꾸로 들고 단
너는 부질서는 용납할수 없다» 하면서 유서길은 김일성 ^별
치상을 공평하게 전체 기관들 앞에서 비난하였다고» 하였다.
이렇게 글라이의 한고함 "친주"는 글라이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말하여 날조 위곡하여 씨워놓고 자기는 사생검호를 아주 솔직
하게 잘하였다는 평가로 석방되고 글라이는 아내한
협의를 김일성 위당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곤 말았다.

나는 이렇게 김일성 무장들에게 남편을 잃고, 다란 입은 의복 한두벌만 남기고 가정가구 일절을 전부다 몰수당하고 3 아이를 데리고 화물자동차에 실려서 서평양 보훈감역 반호를 막집 한방에 가게되었던바 그방의 면적은 겨우 7-8 평방 미터나 되었다 나는 이방에서 약 1년동안 소련대사관의 방조를 받으면서 플라시 행방을 알려고 해군사령부, 최고사령부 중앙당 간부부, 외무성 등에 수차 청원을 올리고 문의하였으나 아무런 회답도 받지 못하여서 소련대사관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외무성에 문의하여도 아무런 소식도 못받았다. 이 당시에 나와 꼭같은 형편에 처한 가정은 소련에서 오신 김동철, 김원길 가정들이었던바 이 세 가정은 앞으로 김일성 정세 제도가 있어서 더 살아 갈 수가 없었기때문에 남편들이 불려온 가장큰데한 불려온을 알면서도 어린아이들의 목숨이나 살구기 위하여 소련정부에 청원을 불려와 극적 및 입국허가를 받아가지고 피난물로 조국 땅을 이별하게 되었다 우리 세 가정은 주인이 없는 가정들이기에 귀국도중에 남취 당할수 없음을 예견하고 소련 대사에게 청원을 제출하였더니 소련국경도시까지 대사관 직원이 호송하여서 완전하게 보내주었으나 조국의 국경강 범능 강을 건너 물때와 조령양역전을 떠날때에 참 울기도 하였다.»

박 소아 비아블름 나는 1932년에 한생하였다. 1936년에 쓰할린 정책에 의하여 아버지가 한압당후 삼촌의 집에서 자라다가 삼촌 박리오니드카북한에 파견될시 처녀로써 삼촌의 가족을 따라 할리니드 함께 북한에 가서 1948년에 김일성 해군 군관학교 교관에게 출가하였다. 출가일은 1952년에 사망하시고, 삼촌 박리오니드는 1953년 2월에 해군 군관으로서 출장 도중 기동노사에 의하여 전사하였다. 때 후에 소련에 친척이라고 하면 고모한분 밖에 없게되었다.

8.

박 소야는 남편 끈라가 말한대로 세 아들^이를 데리고
사촌 시형 김창숙 집에 찾아와 그집 사랑방에서 살면서
아들을 학교에 입학시키고 자기는 직조공장에 취직한다음
노련군 부부성, 외부성 및 당중앙 외무부에 작성한 편지를
내며 사학문제, 부양자를 잃은 아이들에 대한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한편 끈라에 대한 행적을 알아달라는 요청까지
지지서히 써 붙티었다. 사학문제와 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2개
달 내로 해결되었으나 끈라의 행적에 대한 문제는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아무런 회답도 주지 않기로 때문에 해결
할수 없다는 회답만 왔다. 그러나 소야는 이에 ^{여유}지 않고
자기 개체의 범의로 아이들의 이름으로 자기 아버지를 찾아
달라는 편지를 여삼 기관들과 북한측에 노련 대사관 북한
군부성, 외무성, 직접 인민의 아버지로서 가칭한 김일성
에게 부탁 하였으나, 북한측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
었다.

당시 노련은 자무롭고 살기 좋은 나라로 노련났지만 북은
가짜의 원칙이 없고, 민선일이 북한에서 근근 득식으로
사촌 시형 ^{집에와} 사랑방 살림에서 3아이를 공부시키거나
밤잠은 오지않고 울기만 하해서 직장에 나가 좀 돈버리
할 예정으로 기본 기술은 재봉공이면서 직조공으로 근무하다
보니 오빠들이 넘쳐나서 질병에 걸리어 일원하게 되었다
병원 침대에 누어 지간일을 회고하고 앞으로 희망하곤 운일이
대산갈 운이 이 모양으로 병원에 있게 되어 너무나 기가 막히
한 운과 눈물은 질사어가 없었다. 밤이면 잠은 오지않아 이
쪽저쪽 모으로 돌으켜 눕다가는 그래도 잠은 오지않아

수차 밖으로 나가곤 하였다. 밖에서 나가면 밝은 하늘에 달도 밝아
 명랑한데 하연없는 이내 몸은 차라리 죽었으면 만사시름
 다 털고 저승에가 평안이 있으리라. 그러나 나를 잊고 사는 세아
 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초야는 머리끝도
 달은 하늘에 걸려있는 둥근 달을 쳐다보면서 손들들어 말했다
 - 밝은 달아! 우리 곁라에게 그의 가정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
 소서, 그리고 저 악독한 북한 악당들에게 열방을 구소서 하면서
 수차 밟고서 침실에 드루 들어가 늪의 가슴이 시원하여 잠을
 쉰 듯이 있었다. 참 밝은 하늘은 우리들에게 축원을 주었다. 이후
 나는 이어 병원에서 회복하였으니, 소련의 후한 사회체제에 덕이
 의하여 무상으로 훌륭한 사색을 볼배받고 사훈시행 사랑방에서
 배사하였으니, 아이들은 국가혜책으로 전부터 중학 대학까지
 나와 현재에도 남 무렵지 않은 일물하고 있다. 나는 회복후
 힘겨운 직조공장에서 회직하고 피혁갑화공장에서 자기 기능
 에 따라 재봉공으로 일하면서 여유시간을 리용하여 열심히
 공부하여 벌써 2년후에는 기술공정 검열원으로, 다음
 1985년도 불어는 기술 공정 기사를 일하다가 1980년도 불어는
 복직장장, 1985년 불어는 직장장으로 일하다가 1988년
 불어 현재까지 연금 생활을 하기에 사회사업으로 유가족후원
 회사업과 구국전선 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악당원
 들은 소련에서 온가족들을 전부터 열방성히 데리고 "농촌에가서 일년
 만 고생하면 당은 당신들을 관대히 회복시킬 것입니다" 라는 기만
 으로 많이 농촌에 내려보내었으나 그 끝에서 한가족도 도라오지
 못하고 어어졌으니, 그 가족을 찾아보려고 연회같은 사람들로
 남취당하여 망가지고 말았다.

보라, 북한 노동당정체는 그렇게 살기 좋고 자유롭던 ¹⁰인민
공화국을 무엇으로 변경시켰는가? 인민이 자유롭게 통행
못하니 이것이 생지옥이 아니고 무엇인가? 왜 북한 사람은
외국으로 나오지 못하고, 외국에서 간사한들이 마음대로 도타
단닐수 없는가? 왜 북한 당국은 관광단원들에게 이리
특별히 준비한 만경대 구역, 묘향산구역, 금강산 구역, 백
두산 구역 과 평양의 특별구역들만 ^{는가?} 나는 약 5년전에 관광
단원으로 평양에 갔다. 나의 기본목적은 남포린 골라에 대
한 행처를 알아 볼려는 것이었다. 나는 평양에 도착한 즉시 나의
성명을 말하고 책임 한씨원에게 질문하였다. 책임 한씨원은 정
치 보위부에 보고한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회답도 없었다가 집
에 도라올 출발 전날에야 말하기를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다. 보라 북한은 이렇다. 자기들이 짐겨한 사람에 대하여
서도 모른다 하니, 이 나라에서 대간절 무엇을 믿고 산단 말인가?
« 나의 앞이 막 워한은, 이러한 정체는 하루속히 교체되고
나라의 문을 열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 자기마음대로
출입케 하라니 수백만 명의 정치범들에 대한 재판을 공개
하여, 죽었던, 살아있는 사이에 알게 하여 달라는 것이다. »



해군 소장

조선민주공화국 영웅 기수 성씨가 1955년에
노련 출장시 배해제리부리 해군대학 방물관 감상
에 자기 감상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



사진은 해군 소장, 공화국 영웅
김철성 씨가 노련 고문을 둘러싸고 찍은
사진 (1955년)



조선 인민공화국 해군 대좌 김철성씨가
해군 함교부 작전국장으로서 제실시 1953년
9월에 조선인민공화국영웅 김극록 대좌와
같이 찍은사진 (친좌 - 김철성)